

# David Mamet의 *Edmond*: 바람직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백인의 극복 과제

황 규 철

## I.

미국이란 나라는 토착 미국인이 거주하던 땅위에 아프리카 흑인의 피땀어린 노동력을 더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미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삶의 터전을 유지해온 토착 미국인은 유럽 이주민이 퍼뜨린 질병과 그들이 자행한 대학살로 말미암아 수백만의 인명을 잃었다. 미국 사회에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한 엘리트 청교도 Cotton Mather와 Solomon Stoddard뿐만 아니라 미국 건국의 시조라고 불리는 조지 와싱턴과 토마스 제퍼슨까지도 토착 미국인을 이상적인 백인 사회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짐승으로 간주하여 절멸시킬 것을 주장(Stannard 240-241)하였다는 사실은 미국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이상과 괴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sup> 현재 미국 인구 약 2억 6천 만 중에서 토착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5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사실(Ropers and Pence 266)은 미국 인구의 95퍼센트가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과 이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토착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의 최하층을 구성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핵심적인 지배 계층인 앵글로가 토착 미국인을 살육, 착취,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꿈꾸던 미국에 20명의 흑인이 제임스타운(Jamestown)으로 끌려 온 1619년부터 1865년에 철폐될 때까지 노예 제도가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사실 또한 미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독립 선언서에는 당시 노예 무역을 활발히 벌였던 영국 왕 George III세를 비

1) 미국 독립 선언서는 토착 미국인에 대해서 '무자비한' (merciless) 혹은 '야만인들' (savages)이란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일단 전쟁을 벌였다하면 나이, 성별, 상황을 불문하고 상대편을 절멸시키는 것이 인디언의 교전 법칙" (Jefferson 238)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인디언의 잔혹성을 빌미 삼아 이들을 절멸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낸다.

난하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데(Jefferson 238), 제퍼슨을 비롯한 앵글로도 막대한 이윤 창출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흑인을 포획, 매매하는 비인간적 행위를 저질렀다. 노예 제도가 철폐된 이후 아프리카계는 법적으로는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든 비가시적으로든 여전히 차별 받는 주변인으로 남아 있다.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배후에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실세인 WASP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 사회가 여러 인종 및 민족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WASP가 오랫동안 사회의 요직을 독점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피지배 계층으로 하여금 그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양상을 적법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핵심부에 WASP가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권력 구조를 Daniel W. Rossides가 반다윈주의(semi-pluralism)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에는 미국 사회가 소수의 WASP에 의한 과두정치의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함의가 내재해 있다(430).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유색인종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백인의 두려움은 일차적으로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백인의 위기 의식은 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에서 시행해온 차별수정법(Affirmative Action)이 시행되면서부터 본격화된다.

아프리카계의 시민권 운동의 결과 1964년에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면서 차별수정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차별수정법은 1961년 노동 인력을 인종적인 측면에서 통합시키려는 의도 하에 J. F. Kennedy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인종적, 민족적, 성(性)적으로 소수에 속한 집단의 권익 신장을 목표로 이들에게 취업, 승진, 입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차별수정법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사회적으로 냉대 받던 여성이나 유색 인종은 인위 할당제에 의해 고용, 승진, 대학 입학의 기회가 확대된 반면 그 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백인이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현상이 야기되었다.<sup>2)</sup>

2) "Case Histories and Horror Stories" (<http://www.adversity.net/horror.htm>)에는 미국 사회에서 역차별로 인해 제기된 20건의 소송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소수 인종을 변호하는 일을 해왔던 Joseph Ray Terry란 법률가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10년이 넘도록 승진에서 누락된 것에 분노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던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과 보스턴의 라틴 공립학교 측에서 Sarah Wessmann이란 여학생을 백인이라는

백인이나 남성들은 기존의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차별수정법이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소수 인종 및 민족에 대한 백인의 차별로 몸살을 앓았던 미국이 최근에는 역차별을 당하는 백인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전술한 바대로 미국 사회 내에서 빛어지는 단일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 간의 미묘한 충돌과 긴장을 다루는데 유용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쟁점을 두루 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Avery F. Gordon과 Christopher Newfield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네 가지 딜레마를 제시하고 그 원인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난항에 부딪치는 주된 이유는 다문화주의가 통일성이나 일관성에 대한 동화주의적 요구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자체적 속성 때문이다(Willett 1). 하지만 다문화주의의 주요 의제가 인종, 민족성, 성, 계급, 섹슈얼리티라는 점과 다문화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 혹은 분석의 도구를 차용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과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4)</sup>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는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다양성과 이를 포괄하는 단일성의 역동적 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가 해결해야 할

---

이유로 입학을 허가하지 않자 Sarah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전자는 직장에서 이루어진 역차별을 후자는 학교에서 이루어진 역차별을 대표한다.

- 3) Gordon과 Newfield는 다문화주의가 직면한 딜레마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을 네 가지 던지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주의가 반인종차별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인종차별주의를 망각하고 있는가?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자율성인가 혹은 공동의 문화에로의 복귀인가? 다문화주의가 민의에 기반을 둔 것인가 혹은 다양성 관리자들의 의견에 기반을 둔 것인가? 다문화주의가 정치와 문화를 연결시키는가 혹은 분리시키는가?(3-7) Gordon과 Newfield는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질문에 제기된 상반된 쟁점을 대표하는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명확한 의미정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
- 4) Willett에 의하면 다문화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간에는 규범적 사고에 대해서 반발하고, 전통적 이론의 특징인 보편주의와 기초주의에 대해서 불신하며, 지배적 의미체계에 도덕적 권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문화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계된 파편화, 방향감각 상실을 초월하여 이론의 중심 구성요소를 재개념화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인 과업을 향해 매진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2-3).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파편화 혹은 방향 감각 상실과 연관시키는 Willett의 견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문화주의가 파편화 혹은 방향 감각 상실을 지양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과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간에 야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긴장과 갈등의 극복인데 이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WASP의 후예와 소수 인종 및 민족, 각 소수 인종 및 민족간의 갈등 해소를 모색하는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백인이 극복해야할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유태계 극작가인 David Mamet은 *Edmond*<sup>5)</sup>를 통해서 형상화한다. 앞으로 본고는 Mamet이 *ED*라는 작품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해 백인이 극복해야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II.

Mamet은 Don Shewey와의 인터뷰 석상에서 현 미국 사회의 현실과 극장의 도덕적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미국은 많은 증오로 가득 찬 매우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당신은 굼고 있는 상처 부위에 밴드-에이드를 대지 않겠죠. 극장의 도덕적 기능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This is a very violent society full of a lot of hate. You can't put a band-aid on a suppurating wound. The morality of the theater is to tell the truth the best way you can. When you're not doing that, you're being immoral. (Shewey 4)

먼저 폭력과 증오로 얼룩진 미국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ED*(1983)는 Mamet 작품 중에서 최초로 뉴욕을 배경으로 중산층에 속한 백인 남성이 뉴욕 도심지의 어두운 뒷골목을 배회하면서 체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뉴욕 도심지의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형상화하기 위해 삽화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작품이 무대에 공연될 당시 배우들이 1인 2역을 소화해 냈는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의 이입 없이 주인공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Upper West Side)에 거주하는 중산층 백인 남성인 Edmond가 단조롭고 무의미한 가정과 직장에서 벗어나 뉴욕의 환락가를 배회하다가 Glenna란 여급을 살해한 혐의로 체

5) *Edmond*의 텍스트는 *The Woods, Lakeboat, Edmond*. New York: Grove Press, 1987이고, 앞으로 이 작품을 인용할 시에는 *ED*로 약칭한 다음 쪽 수를 표기할 것임.

포되어 감옥에서 동료 흑인 죄수로부터 펠라치오(fellatio)를 하도록 강요받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즐거이는 사실주의적인 잣대로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ED*를 사실주의적 시각에서 파악한 Bigsby는 *ED*가 인간 관계가 돈과 섹스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인공이 무지에서 자기패배에 도달하는 과정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린다(225-226). Bigsby의 이러한 오류는 *ED*를 사실주의적 잣대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작가 스스로도 *ED*가 신화나 우화에 속한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주의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고(Shewey 4), Carroll, Dean, Blondell과 같은 일군의 비평가들도 *ED*가 사실주의와 동떨어진 신화, 알레고리 혹은 우화의 성격이 강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Carroll 97; Dean 188; Blondell 154). 이런 관점에서 *ED*는 주인공 Edmond의 무의식에 펼쳐진 악몽을 다룬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Mamet은 *ED*가 분열된 자아를 가진 주인공이 기존의 자아를 철저히 파괴한 후 자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다룬 대단히 희망적인 작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Shewey 1), 이는 *ED*의 올바른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런데 *ED*의 주인공인 Edmund Burke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서 전술한 비평가들이 모두 간과한 내용은 그가 WASP가 만든 왜곡된 편견을 그대로 물려받은 백인이라는 사실이다.<sup>6)</sup> 이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소수 인종 및 민족의 일원인 Mamet이 백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보여주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Edmond란 주인공을 중심으로 대도시 뉴욕에서 펼쳐지는 일련의 사건과 이를 통해 주인공의 내면에 일어나는 사고의 변모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0대 중반으로 중산층에 속한 Edmond는 자신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점쟁이(fortune-teller)를 만나 조언을 듣는다. 점쟁이가 Edmond에게 한 조언 가운데에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개인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그가 속한 불확실한 세계로부터 탈출하라는 대목이다(220-221). 이때 점쟁이는 Edmond를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221), 이 단어는 그가 미국

6) 비평가들은 대체적으로 *ED*의 주인공의 이름이 18세기에 활동했던 보수주의적 산문 작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Edmund Burke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 인물간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면, Dean과 Ryan과 같은 비평가들은 *ED*의 주인공과 Edmund Burke는 이름의 철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유의 극단적 추구가 미덕과 생의 향유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Edmund의 주장을 Edmond가 언행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Dean 173; Ryan 186).

사회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백인이라는 점과 앞으로 그가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는 백인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가정으로 들어온 Edmond는 부인에게 그녀가 정신적인 혹은 성적인 면에서 그의 관심 밖에 있다고 선포한 다음 가출을 감행한다. 점쟁이의 조언대로 현재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탈출한 Edmond는 바(bar)에서 만난 남성과 백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과도한 압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 남성으로부터 앞으로 그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일련의 경험에 대해서 듣게 된다. 바에서 만난 남성이 열거한 일련의 경험이란 '여성, 힘, 돈, 모험, 자기 파괴, 종교, 해방, 확인 및 동의' (227)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전개될 Edmond의 운명을 예시해준 것이나 진배없다. Edmond가 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토로하자 그 남성은 부인과의 갈등이 남성성의 상실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충고한다. Edmond는 알레그로(The Allegro)라는 술집에 가보라는 그 남성의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Edmond의 성애의 여정은 시작된다.

바(bar)에서 만난 남성이 가르쳐 준대로 알레그로에 들른 Edmond는 그곳에서 B-Girl과 상관(相關)하기 전에 화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 불할 화대의 일부가 지배인이나 바텐더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하고 그가 B-Girl과 속임수 없는 정직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는 순진한 면모를 보인다. B-Girl과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자 알레그로를 나온 Edmond는 팝쇼 걸(peep show girl)과 헬스클럽을 가장한 유곽의 창녀와도 알레그로에서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다시 말하면 전자에서 두꺼운 유리 칸막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자에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성행위가 가능하지만 현금 부족으로 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족한 화대를 보충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벌어진 카드 도박에 긴 Edmond는 이를 주도한 야바위꾼들의 속임수로 50불을 잃고 난 후 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흠뻑 두들겨 맞고 지갑과 신용카드를 모두 빼앗긴다.<sup>7)</sup> 이리하여 Edmond는 중산층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일푼의 평범한 인간으로 뉴욕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Edmond

7) Mamet의 *The Spanish Prisoners*(1985)의 1장에서 B란 인물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A는 "모든 것이 휴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자 근본적인 힘"(GS 21)인데 이를 거역하는 힘이 개성(personality)이라고 주장한다. A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든 과학을 신봉한 결과, 내면의 열망을 은폐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GS 21). 작가의 분신인 A는 생존을 위해 오로지 '착취하려는 의지'('THE WILL TO EXPLOIT')에만 관심을 갖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사리사욕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이러한 의지는 Edmond가 성적인 모험을 하기 위해 맨해튼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군상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는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기 전에 계층과 관련된 굴레 하나를 벗어 던진 셈이다.

야바위꾼들에게 맞아 비참한 몰골을 한 Edmond는 호텔에 들어가 객실 배당 사무원에게 신용 카드 분실 신고를 위해 전화가 무료인지를 물어본다. 호텔 직원의 무관심하고 냉담한 대꾸에 Edmond는 “당신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소? 내가 상처를 입은 것이 안보이나요? 당신은 눈멀었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당신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소? (사이) 나는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249)라고 말함으로써, 정중하고 완곡한 어조를 보이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호텔에서 나온 Edmond는 전당포에 가서 반지를 저당 잡히고 받은 돈으로 서바이벌 나이프(survival knife)를 구입한다. 그리고 나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그녀가 쓰고 있는 모자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쓰던 것과 같다고 말을 건다. 그녀가 경계하며 피하려하자 그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분노를 터뜨린다.

**에드먼드:** ... 도대체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 ... 내가 뭐지? 돌인가? ... 내가 “당신의 성기를 핥고 싶소”라고 말했나? ... 나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모자를 썼소. ...”라고 말했지. 이 년아 ... 내가 뭐지? **개니?** 난 당신의 **면상**을 난도질하고 싶어. ... 나는 당신의 야비한 **면상**을 난도질해버리고 싶어. ...

EDMOND: ... who the fuck do you think you *are*? ... I'm *talking* to you ... What am I? A *stone*? ... Did I say, “I want to lick your pussy”? ... I said, “My mother had that same hat. ...” You *cunt* ... What am I? A *dog*? I'd slash your fucking *face* ... I'd like to slash your motherfucking *face* apart. ... (255)

Edmond가 지하철의 여성에게 던진 분노에 찬 울부짖음은 그의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식 없이 표현한 것이다. 이 대목은 Edmond가 남성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백인 남성인 Edmond가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리하여 Edmond는 무의식에 잠재해 있던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의식의 수면으로 떠올리는데 성공한 셈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 말고도 Edmond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은 아프리카계에 대한 편견이다. 아프리카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하철 밖으로 나와 거리를 서성

이던 Edmond는 깨끗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아프리카계 뚜쟁이를 만난다. 화대를 미리 지불한 Edmond를 으스스한 골목으로 유인한 뚜쟁이는 갑자기 그에게 칼을 갖다대며 돈을 노리는 강도로 돌변한다. 등을 돌려 채서있던 Edmond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뚜쟁이의 얼굴을 가격한다. 칼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쓰러진 뚜쟁이를 향해 Edmond가 내뱉는 욕설은 'NIGGER,' 'jungle bunny,' 'coon,' (260)으로 아프리카계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Edmond가 분노에 치를 떨며 아프리카계 뚜쟁이에게 내뱉는 욕설 속에 여성을 비하하는 'cunt'와 동성애자를 경멸적으로 나타내는 'cocksucker'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60-261). 이는 백인인 Edmond가 여성, 흑인, 동성애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 가지 편견은 모두 백인남성우월주의에서 파생한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이렇므로 Edmond가 세 가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인남성우월주의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프리카계 뚜쟁이를 때려눕힌 Edmond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커피하우스에 앉아 백인 여급 Glenna에게 그 동안 자신이 생중사(生中死)의 삶을 살아왔다고 토로한다. 그는 자성하는 어조로 백인들이 보호받고 성장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기존의 규칙이나 관례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 이를 수용하는데 더욱 익숙해왔다고 말한다. Glenna는 Edmond의 자신감에 찬 언행과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직설적인 표현에 매료되어 그녀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맺고 나서 Edmond로부터 흑인 뚜쟁이를 두들겨 패준 이야기를 듣는다.

에드먼드: ... 나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소. (사이.) 그 순간 삼십 년 동안 지녀왔던 편견이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소. (사이.) (중략) 처음으로, 나에게 맹세하건대, 처음으로 나는 깨달았소: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EDMOND: . . . I wanted to KILL him. (Pause.) In that moment thirty years of prejudice came out of me. (Pause.) (. . .) For the first time, I swear to God, for the first time I saw: THEY'RE PEOPLE, TOO. (265)

그의 고백에는 아프리카계가 백인에게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고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억압해왔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Edmond는 아프리카계 앞에서 언어를 통해 편견을 쏟아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의식을 거친 결과 흑인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벗어나고, 남성성을 회복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Edmond는 아프리카계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는 전기를 마련하였지만 그에게는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하는 나머지 과제가 남아 있다.

성관계를 맺고 나서 Edmond와 Glenna의 대화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시점은 Glenna의 꿈이 연극 배우라고 말하면서부터이다. 관객 앞에서 직접 연기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Edmond의 질문에 Glenna는 수업이나 워크샵에서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런 적은 없다고 대답한다. 문제는 Edmond가 얻은 깨달음을 그녀와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앞선 나머지 그녀가 연극 배우가 아닌 웨이트리스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데 있다. Glenna가 그를 악마라고 비난하면서 나가라고 고함치자 Edmond는 Glenna에게 '멍청이' ('idiot'), '개년' ('bitch')이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녀를 서바이벌 나이프로 찔러 죽인다. 이때 Edmond는 그녀가 죽음을 자초했다고 말함으로써 자기기만적인 모습을 드러낸다(272-273). Glenna를 살해한 Edmond는 자신이 극복할 세 가지 편견 중에서 아프리카계에 대한 편견만을 극복했을 뿐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더욱 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Glenna의 아파트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Edmond는 아프리카계 군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도중 신을 증거할 인물을 물색하던 목사의 눈에 띄어 설교 단상에 오르려다가 전날 지하철역에서 마주쳤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녀는 Edmond가 그녀를 지하철에서 겁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다. Edmond가 그녀를 겁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를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녀가 그로부터 언어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든지 혹은 군중 앞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잔혹할 정도의 욕설을 퍼부은 이유는 그가 악의 없이 친근감을 나타낸 데 대해 그녀가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엉겁결에 경찰관과 대면하게 된 Edmond는 자신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장로이므로 단상에 올라가 설교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의 옷에서 발견된 서바이벌 나이프 때문에 체포된다(277).

그런데 Edmond가 같은 감옥에서 생활할 거구의 아프리카계 죄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아프리카계 죄수에게 아프리카계를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 바로 백인인데, 백인은 고독한 존재이므로 아프리카계와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85). 또한 그는 자신이 이 곳에 온 이후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식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듯이 말한다. 하지만 의식의 대변혁이 이루어졌다는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프리카계 죄수는 그에게 펠라치오(fellatio)를 강요한다.

**아프리카계 죄수:** 자, 해봐.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 일을 끝내버리자.

(사이) 난 같은 말 반복 안 해.

에드먼드: 소리지르겠어.

아프리카계 죄수: 네가 소리지르면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넌 죽게 될걸. 이제 날 보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봐. (사이.)

에드먼드: 난 ... 난 ... 난 ... 난 ... 난 할, 할 수 없어. 난 ... 난 ...

아프리카계 죄수: 이 망할 자식아. 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해. 아가 씨. (흑인 죄수는 에드먼드를 몇 차례 지독하게 손찌검을 한다.)

PRISONER: Well, you going to try or you going to die. Les' get this out the way. (Pause.) I'm not going to repeat myself.

EDMOND: I'll scream.

PRISONER: you *scream*, and you offend me. You are going to die. Look at me now and say I'm foolin'. (Pause.)

EDMOND: I... I... I... I... I can't, I can't do, I... I...

PRISONER: The motherfuck you can't. *Right now*, missy. (The PRISONER slaps EDMOND viciously several times.) (287)

그의 의식에 진정으로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아프리카계 죄수의 강요로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그는 기존의 백인/흑인, 남성/여성, 이성애/동성애라는 대립항 중에서 전자가 우월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 붕괴되는 의식의 대혁명을 체험하게 된다. Dean은 Edmond가 아프리카계 죄수와 동성애를 할 때 여성역을 맡음으로써 여태까지 그가 간직해왔던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동성애혐오주의가 일거에 전복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평한 바 있다(186).

비록 강요된 형태이긴 하지만 아프리카계 죄수와 동성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에게 의식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교도소 내의 관계자에게 동료 죄수로부터 펠라치오를 강요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과거에 자신이 보인 언행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가 과거의 일을 곱씹으며 반성하는 모습은 고교 시절 졸업 무도회에 강제로 데려갔던 Debbie의 어머니인 Mrs. Brown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하지만 Debbie가 무도회에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를 부인하는 대목은 Edmond에게 자신의 과거의 언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 준다.

그가 아프리카계,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22장과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는 23장 사이인데, Edmond가 동료 아프리카계 죄수와 운명과 내세에 대해 평화로운 어조로 대화를

나는 다음 잠자리에 들기 전 아프리카계 죄수에게 애정 어린 키스를 하는 23장은 그의 의식에 대변혁이 일어났음을 입증한다. Edmond가 아프리카계 죄수에게 키스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Bigsby는 무지에서 시작되어 자기 패배로 끝난 Edmond의 암울한 여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226), Blondell, Dean, Carroll과 같은 비평가들은 Edmond가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백인으로서의 압박감, 여성과 유색 인종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아 발견을 이루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Blondell 173; Dean 186; Carroll 105). 이렇듯이 Edmond의 내면에 켜켜이 형성된 아프리카계,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고 파괴됨으로써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Edmond의 여정이 바(bar)에서 만난 남성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8)</sup>

### III.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학계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인종, 민족성, 성, 계급, 섹슈얼리티 등을 모두 포괄하므로 이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크게 동화주의적 입장, 다양성(Diversity)보다 단일성(Unity)을 강조하는 입장, 단일성보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 분리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한 도날드 로이(Donald Roy)의 견해(6-7)를 살펴보더라도 다문화주의가 단순히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역설하고 이를 포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만이 결코 아님을 보여준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날드 로이의 분류 방식을 미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에 원용할 경우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다양성과 이를 포괄하는 단일성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표어가 '다양성을 하나로'를 의미하는 '에 플루리부스 우눔'(E Pluribus Unum)이었지만 다양성과 단일성간의 역학 관계를

8) 이런 점에서 ED는 Mamet이 「쇠퇴론」("Decay")에서 개진한 바 있는 문명 성쇠 반복론과 운명 예정설을 작품 속에 형상화한 것이다. Mamet에 의하면 문명 성쇠 반복론이란 문명이 생성, 성장, 성숙, 쇠퇴, 사멸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고(WR 110-111), 운명 예정설은 이러한 순환 과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WR 115). 이 점에 착안하여 Ryan은 Edmond가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경험을 거쳐 휴식의 단계에 도달하듯이 그가 속한 미국 사회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189).

다루는 다문화주의는 현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용하다.

미국의 소수 집단의 하나인 유대계 미국인 극작가인 Mamet은 이례적으로 *ED*에 백인 주인공을 등장시켜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간의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백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D*에서 Mamet은 미국 역사의 초기에 앵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편견이 백인 일반에게 파급되어 각 인종 및 민족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D*의 주인공은 일견 평범한 백인이긴 하지만 WASP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다. 작가는 백인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고뇌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여성, 동성애자, 아프리카계에 대한 편견을 가진 Edmond를 공감과 비판이 공유하는 시각으로 그린다. 뉴욕의 뒷골목을 배회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Edmond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백인이 인종, 성, 성적 취향에 대한 편견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만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이 이해되고 존중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ED*는 중산층 백인 남성이 뉴욕의 도심지를 배회하면서 내면에 겹겹이 형성된 편견을 분쇄해 나가는 과정을 작가의 공감과 비판이 공존하는 시각에서 형상화함으로써, 각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백인이 넘어야 할 편견의 벽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참고문헌

- Bigsby, C.W.E. *Modern American Drama: 1945-1990*.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92.
- Blondell, John Douglas. *Myth and Antimyth in the Work of David Mamet*. Michigan: UMI, 1990.
- Carroll, Dennis. *David Mame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Case Histories and Horror Stories." <<http://www.adversity.net/horror.htm>>.
- Dean, Anne. *David Mamet: Language as Dramatic Action*. London and Toronto: Associated Univ. Press, 1990.
- Gordon, Avery F., and Christopher Newfield. "Introduction." *Mapping Multiculturalism*. Eds. Avery F. Gordon and Christopher Newfield.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6, 1-16.

- Jefferson, Thomas. *The Portable Jefferson*. Ed. Merrill D. Peterson.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5.
- Mamet, David. *Edmond. The Woods, Lakeboat, Edmond*. New York: Grove Press, 1983.
- \_\_\_\_\_. *The Spanish Prisoner. Goldberg Street: Short Plays & Monologues*. New York: Grove Press, 1985.
- \_\_\_\_\_. *Writing in Restaurant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Ropers, Richard H., and Dan J. Pence. *American Prejudic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Some*. New York: Plenum Press, 1995.
- Rossides, Daniel. *Social Stratification: The American Class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0.
- Roy, Donald H. *The Reuniting of America*.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Inc., 1996.
- Ryan, Steven Daniel. *David Mamet: Dramatic Craftsman*. Michigan: UMI, 1988.
- Shewey, Don. "David Mamet Puts A Dark New Urban Drama on Stage." *New York Times* 24 Oct. 1982, sec. 2: 1 & 4.
- Stannard, David E. *American Holocaust: The Conquest of the New Worl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 Willett, Cynthia. *Theorizing Multiculturalism: A Guide to the Current Debate*. Malden: Blackwell Publishers Inc., 1998.